



마지막 불꽃을  
화려하게 태우고 싶은  
노년의 아름다운 성(性)

성욕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다.

인간의 신체가 아무리 노화할지라도 인간의 기본욕구인 식욕, 수면욕, 배설욕구(성욕)는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존재한다.

젊은 사람들은 노인들이 성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나이에 관계없이 본능적으로 성기능이 발동하기 마련이다.

마지막 불꽃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처럼 오히려 강렬한 욕망이 분출될 수도 있다.



2002년도에 상영된 영화 <죽어도 좋아>는 노년의 성을 솔직하고 대담하게 그려냈다.

이 영화는 일흔을 넘긴 두 노인이 사랑에 빠지고, 섹스를 나누게 되는 과정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영화 <죽어도 좋아>는 그동안 수면 아래서 숨을 죽이고 있던 노년의 성이 수면 위로 부상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직도 ‘사랑하고 성생활을 즐길 권리’를 가진 노년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노년층의 성에 대한 갈망이나 욕구는 젊은층 못지않다. 성욕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신체가 아무리 노화할지라도 인간의 기본욕구인 식욕, 수면욕, 배설욕구(성욕)는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존재한다.

한 통계에 의하면, 60살 이상 노인 10명 중 6명이 성생활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통계에 의하면, 60살 이상 여성노인 중 51.8%는 ‘성생활이 필요하다’, 22%는 ‘배우자가 없어도 성생활을 하고 싶다’고 욕구를 드러냈다.

위의 통계를 보면 노년층의 성에 대한 관심도나 인식을 쉽게 알 수 있다.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노인들은 성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과 비교할 때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나이에 관계없이 본능적으로 성기능이 발동하기 마련이다.

마지막 불꽃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처럼 오히려 강렬한 욕망이 분출될 수도 있다.

남성의 경우 개인 차이는 있겠지만 이론적으로 70대까지 남성호르몬이 분비되고 정자가 형성되어 임신도 가능하다. 간혹 홀로 된 부모가 이성교제하는 것을 주책이라고 말리는 자녀들

이 있는데, 이는 이기적인 생각이다. 이혼이든, 사별이든 그 당사자는 큰 스트레스와 상실감에 시달린다. 이성교제를 하느냐 마느냐는 당사자가 결정할 문제이며, 자녀들은 오히려 다양한 취미생활을 권장하는 등 홀로 된 부모를 배려해야 한다.

최근 노년층의 급격한 증가로 향후 20년 뒤에는 사회 문제로 떠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불과 20~30년 전만 해도 환갑이 넘으면 노인으로 취급했지만 요즘은 의학 및 영양상태의 발달로 인해 60대는 이제 장년층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노년층의 건전한 성생활은 오히려 건강한 노년층의 증가로 이어진다.

이제부터라도 노년의 성 문제에 대해 새로운 시각과 긍정적 사고의 인식이 필요하다.

30대중반의 S씨가 본원에 비아그라 처방을 받기 위해 방문했다.

필자는 발기촉진제를 복용하기는 너무 젊은 나이라 그 이유를 묻자, S씨는 겸연쩍게 머리를 만지면서 다음과 같이 어렵게 말문을 열었다.

“제가 아니고... 아버님 드리려고 ...”

“아버님께서서 요즈음 기력이 딸리시는 것 같아서요.”

“상처하신 뒤, 얼마 전에 새 장가를 드셨거든요.”

필자는 “요즈음 저런 효자가 다 있나?” 하고 흔쾌히 처방전을 써주었다.

퇴근길에 고향친구들과 모처럼 막걸리 한잔 걸치고 집에 들어가니 고3 아들 녀석이 필자를 반겼다.

그날 필자는 아들 녀석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생각했다.

“이 녀석도 나를 위해 비아그라를 사올까.....?”